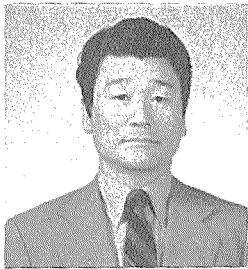


#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 " " " " " " " " "



**최근**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를 사회개발 부분의 일환으로서, 국가장기발전 구상속에 이를 포함시키고 국민들의 건강생활 증진책을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고 보건의료 자원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각종 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 봉사의 능동적인 활동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해온 사회경제발전과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국민들의 경제 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을 예측하건데, 향후 질병발생 양상도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에는 전염병 및 급성질환 등이 주로 큰 보건문제로 등장하였으나 미래에는 비전염성 또는 만성병 위주의 질병발생으로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질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보건관리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위주의 보건위생만을 강조할것이 아니라, 집단중심 내지 지역사회 주민전부의 책임하에 모두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다.

보건교육은 그 원래의 뜻대로 전체 지역사회 보건사업 가운데 기초사업이며 모든 보건사업을 지원해야 할 기본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항상 강조되어왔다. 이러한 사업의 특성에따라 보건교육활동은 모든 보건인의 의무일뿐만 아니라 장단기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기초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 강화와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을 대상으로한 계몽교육적차원에서 건강생활을 목표로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의 개발이나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였다고해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실천에 있다는 이론은 항상 강조되고 이에 대한 학술적 방법 개발에 대해서는 수차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지역

이 시 백

한국보건교육학회장

# 홍보전략 개발세미나 개최의 의의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개발에는 미흡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개최할 「세미나」는 단순한 학술활동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단기 사업 수립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 경험을 함께 고려한 토의장으로 확대시키므로써 관계 전문가 및 사업관리자간의 의견을 일치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개발에 직접 응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큰 의의를 두었다.

본 세미나에서 토의될 내용으로 보건데, 국민의 보건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전염성질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보건교육사업의 장기적인 활동계획을 구상하며 이에 따른 사회조직 및 지역사회 자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개발한다는 것은 본 세미나에서 토의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강조되어온 보건관계법규의 운영도 규제나 강제적인 실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장려책으로 활용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하고 토의한다는 것도 본 세미나의 커다란 의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주위에 존재하는 각종 대중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며 보건사업을 위해 여하히 협력홍보매체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제도 운영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단체의 활동도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그 기능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다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치로 보아 본 세미나의 의의는 크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많은 학술토의장에서 경험하듯 토의의 내용이 순수 학술적 가치로는 높지 평가되나 적용에 있어서는 비현실적인 면이 있어 이론과 실체가 다르다는 비판을 받은 예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본 「세미나」는 보다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이에 필요한 계몽전략을 개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토론의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사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접근 방법을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응용하여 타인접사업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